

한전, 필리핀 세부발전소 준공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지난달 27일 필리핀 세부에서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에너지부 장관, 세부 주지사, 필리핀 전력공사 사장 등 필리핀 정부 관계자 및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MW급 세부발전소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세부발전소는 환경친화적인 유동층 석탄 화력발전소로 한전이 발전소를 건설·소유하고 연료 조달에서 생산, 판매 등 운영 전 과정도 책임지게 된다.

한전은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공동으로 합자회사(KSPC)를 설립했으며 76%의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억 5100만 달러로 사업비의 70%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차관단으로부터 전력판매 수익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했다. 발전소 건설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했다.

이번 세부발전소 준공으로 세부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비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전은 검증된 기술력으로 국제 및 현지 기준에 맞는 최고의 발전소로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한전, 장마·태풍 대비 특별대책 마련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여름철을 앞두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력설비 재해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은 강풍과 폭우, 낙뢰 등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선로 과부하, 고객설비로 인한 파급고장 등으로 연간 전체고장의 절반이 넘는 크고 작은 고장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번에 마련한 전력설비 재해예방 특별 대책은 작년 태풍 곤파스에 의한 설비피해 중 70%가 수목도괴(가로수 넘어짐)에 의해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전력선 인근 수목 일제 정비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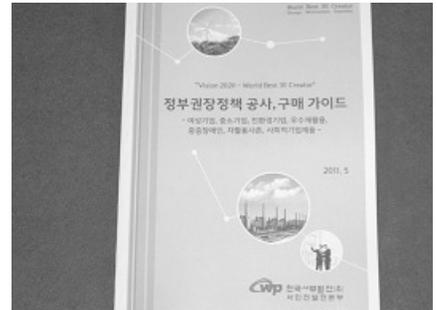
특히 전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보강을 통해 강풍으로 인한 전주도괴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정부권장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부권장정책 공사·구매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권장하는 상품 및 업체명이 해당 부처별로 게시돼 있어 통합검색이 어렵고 일일이 검색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권장제품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밖에 서부발전은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발전기술 및 품질, 안전경영 컨설팅, 정보교류를 위한 상호교환 근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서부발전, '정부권장정책 공사·구매 가이드북' 발간



석탄재 처리장이 없고 폐수를 흘려보내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가 강원도 삼척에 들어선다. 3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돼 2015년 완공되는 이 발전소는 지역경제 효과만 30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유치에 뛰어들어 따낸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은 지난달 10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서 삼척 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 착공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최연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협력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남부발전은 총 공사비 3조 2000억 원을 투입, 설비용량 2000MW의 삼척그린파워 종합발전단지 1단계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착수했으며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발전소 주설비는 세계 최대용량의 500MW 유동층 보일러 2기와 1000MW 터빈 1기를 2대1 조합한 세계최초 1000MW급 저열량탄 수출형 모델(ATP-1000) 발전소다.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석탄재 처리장 없는 발전소,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발전소, 폐수 무방류하는 3무(無) 발전소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에 의해 건설된다.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55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발전소지역 지원금 약 1429억 원, 지방세 750억 원, 지역사회 환원비용 약 1776억 원 등 경제적 효과는 3000억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남부발전, 3조 원 삼척그린파워 발전단지 착공



동서발전, 산림청과 바이오매스사업 협약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은 지난달 16일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목재 에너지림 조성, 바이오순환림, 임지잔재(벌채 후 남는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 부산물) 수집확대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바이오매스 공급확대 ▲목질계 바이오매스 관련 제도 개선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됐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수거비용이 높아 방치되고 있는 임지잔재 등을 우드칩과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 동해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해 약 5만7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3만kW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오는 2013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전KPS, 공기업 최초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발전설비 정비 전문기업인 한전KPS(사장 태성은)가 공기업 최초로 한국표준 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한전KPS는 지난달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1년 한국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명예의 전당」 헌정패를 받았다.

한전KPS는 SI(Service Identity)인 "Feel the Master's Touch!"(명품정비의 차이를 느껴보세요!)를 통해 정비서비스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A Must Quality 운동', 'Be the Master 운동', 'Challenge 6 Sigma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전사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CS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한전KPS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아프리카 수단 등 세계 각지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한전KPS는 12년 연속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국가 품질상 수상, 한국품질대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공기업의 '품질경영혁신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의 벤치마킹 대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 3000억대 프로젝트 수주

한전KDN이 국내 기업으로 처음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전KDN은 최근 미국 마티네에너지와 애리조나 주 벤슨지역에서의 60MW 규모 태양광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사업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에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한전KDN은 2년 동안 벤슨지역 180만㎡ 용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JP모건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약 30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는다. 이 금액은 이 회사의 올해 매출 목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사업 진행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에 필요한 국내외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며, 전력IT시스템은 자체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전KDN, 美 태양광발전소 진출 물꼬 텄다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장재원)은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전문업체인 세니온(대표 이동률)과 공동으로 154kV 송전선로보호용 IED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송전선로보호용 IED는 변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감시해 해당 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선로를 차단, 전력기기의 손상과 다른 계통으로의 고장 파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발된 IED는 전력연과 세니온이 공동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 3년간의 연구 끝에 얻은 결실이다.

전력연구원과 세니온은 개발된 IED에 '변전소 내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인 IEC 61850을 적용, 운영 시스템과 타 IED와 함께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변전소 구축을 가능케 했다.

전력연구원, 154kV 송전선로 보호 IED 국내 첫 국산화



현대중, 조류력발전 시운전 성공



현대중공업(회장 민계식)이 전라남도 진도군 울돌목에서 독자 개발한 500kW급 조류력발전 실증설비 설치 및 시운전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 9월 울산 본사에서 육상 성능시험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에 해상 시운전에도 성공함으로써 조류력발전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일 이 설비를 설치한 이래 한 달여의 시운전을 통해 유속(流速) 당 출력과 효율이 당초 설계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 발전설비는 세계 최초로 수차와 증속기(기어), 발전기를 수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연결한 직결(直結)식 동력전달 방식을 채택해 전력의 손실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를 양쪽에 설치해 밀물과 썰물의 조류 방향에 관계없이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풍력에 이어 조류력까지 진출, 그린에너지사업의 보폭을 넓혀나가게 됐다. KEA